하나님은 다 끝내신 뒤에, 나는 시작 전에

(히4:1~11)

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다 끝내신 뒤에, 나는 시작 전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전설적인 미식가가 한 분 있습니다.
'기타오지 로산진'이라는 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미식이라고 하는 말을, '좋은 음식을 먹음' 이렇게 정리가 돼있을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음'이라고.
그런데 이 기타오지 씨가 정의를 내린 미식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미식이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것이다.
다르지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거위 간을 먹고, 상어 지느러미를 먹어야 미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미와 꽁치를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도미라는 게 제철이 있고 주요 산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철에 난 것도 아니고, 주요 산지도 아닌 도미를 갖다가, 무조건 도미라고 좋아하는 것은, 제철 만난 꽁치보다도 맛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맛있다고 주장하는 줏대 없는 입맛이다, 이

렇게 얘기를 합니다.
꽁치가 낫다는 거예요, 제철에 꽁치.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그 홍합 그게 얼마나 서민적이고 싸면서도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근데 하얀 홍합이 있고 붉은 홍합이 있지요? 하얗다기보다는 미색, 미색 홍합.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가 다른 거냐? 하얀 홍합은 수놈이고, 붉은 홍합은 암놈입니다.
근데 이 수놈과 암놈이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합은, 어렸을 때는 수놈이고 성숙하면 암놈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홍합이 많이 잡히는데 그때 하얀색이에요, 맛이 없어요, 수놈입니다.
근데 3월 달이 돼가지고 산란 직전의 상태가 될 때 암놈이 되는데, 이 붉은색 홍합이 그렇게 맛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식의 관점에서 뷔페식당의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미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뷔페는 근본적으로 대식과 탐식과 과식의 맞도록 준비된 식탁이지, 미식에 맞도록 준비된 식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만 먹어도 만족할 수 있을 음식들이 수없이 쌓여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맛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입맛을.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뷔페식당에 가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배부름 그 자체지 미식을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자! 이런 미식의 관점에서 신앙을 얘기하면,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맛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맛을 보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사는 것.
이 경우는 절대로 소재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다른 소재 다른 재료로 맛보고 배불러서는 안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고 먹기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잘 하나님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맛본다, 먹는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우리 마음이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좋아하고 마음 안으로 들여 놓는 게, 먹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 몸의 위속에 들여 놓는 것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먹기로 작정했어요, 방법이 틀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맛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가장 잘못된, 보편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하나님 먹는 잘못 된 방법이 바로, 뷔페식 하나님 먹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맛을 모릅니다, 뷔페식으로 먹으면.
내가 돈 맛을 압니다, 자식 기르면 어떤 맛이 나는 걸 압니다, 명품 맛을 압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맛을 압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하는 맛을 압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살이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즐겁게 해 줄 여러 가지 맛을 아는, 삶이 뷔페식당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모세가 영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든 것을 함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장정 6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복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1세대를 겨냥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안식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본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안식이 제공된 것이었고,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내고 누리신 이 안식은, 지금도 우리에게 까지 offer, 제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데, 조심할 것은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식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그것이 바로 안식이 우리에게 제공됐다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 뭘까요?
안식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제3자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만남, 제3자에 의해 방해 받지않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의 만남,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요 만남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은 나로 인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안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비유는 신혼여행일 거예요, 신혼여행.
신혼여행이 뭡니까?
너~무 좋았어요, 남자가, 너~무 예뻤어요, 여자가,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내줍니다, 신혼여행을.
제3자에 의해 방해 받지 말고, 오로지 너희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신혼여행 갔다 오면, 현실에 부딪쳐야 됩니다.
제3자에 의해 방해 받지 않는다고 그럴 때, 3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뭐 과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하여간 내 마음을 빼어가는 대상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마음의 대상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뚝 떨어져서 오로지 신랑은 신부만을 보고, 신부는 신랑만을 보면서 옴~팡, 마음속에 신랑을 가득~ 담고, 옴~팡 마음속에 신부를 가득~ 담아서, 마음껏 신랑과 신부로 기뻐하라는 게 신혼여행의 취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와의 신혼여행,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신혼여행 같은 그러한 시간을 갖자, 허니문을 갖자!'
하나님과의 허니문,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태초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알려면, 하나님 맛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를 알려면, 태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태초에 시작이 되었고, 태초에 시작한 그 안식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안식이 하나님과의 허니문의 순간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돌아가서 보면, 어떤 상태에서 안식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에, 그 6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시간의 단위로서의 6일 동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일째 제일 마지막에 6일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까지 지으시고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생애의 첫 순간은 안식일로 맞이합니다.
요 안식일에 임하는 양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작업을 끝내 놓고 안식에 임하셨고, 아담은 아직 이 세상에서 의식을 깨서 태어나 인격자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 상태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첫째 날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실 때 아! 태양이라는 게 저렇게 있고 참 아름답구나, 달을 만드실 때 달이 아름답고, 바다를 지으실 때 바다를 아~ 파란 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바다 속에 온갖 물고기를 지을 때 그 물고기 예쁜 물고기, 먹음직한 물고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다 아담 속에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요거 예쁘고 요거 좋고 요거…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이미 이 삶의 현장은, 뷔페식당이 돼버려 가지고, 하나님 맛이 어떤 맛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만의 만남으로 허니문의 시간으로 아담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이 안식에 있는 거예요.
이 안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과만의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의 과정이 진행됐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인간 만들기 전까지 만드신 모든 것은, 사실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에덴동산까지 만드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인간이 자기의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일 처음에 만난 대상이 마음이 백지 같은 상태에서, 과제도 없고 일도 없고 승진에 대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뭐 이런 모든 강박관념으로부터 아~무것도 없이 자유로운 백지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짜서 인간과 만나시는 안식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완고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고한 상태.
완고한 상태가 뭐라고요 여러분?
타락 이후에 완고한 상태가 만들어진 건데, 육체로 살면서 접하게 되는 게 있어요.
5감관으로 접하잖아요? 견물생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이 육체를 통하여서 받는 느낌에 의해서 마음에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육체에 종속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육체를 통해서만 소원과 욕구를 갖게 되니까.

이렇게 육체를 통해 생긴 욕구를 고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여기서 완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서도, 그러한 육체 때문에 야기되어지고 육체 때문에 동기 되어진 그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완고한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는 도저히 안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그 신혼여행 때 그렇게 좋고 예쁘고 했던 신부와 신랑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늙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랑 맛이 신혼여행 때와 20년이 지난 지금하고 다른 이유는,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맛들을 느끼면서 뷔페식당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 맛이 있지요, 돈 맛이 있지요, 아까 말했지만 명품 맛이 있지요, 동창들 만나 수다 떠는 맛이 있지요, 여러~가지 맛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다 보니까, 신랑이 신혼여행 때는 오직 그거 하나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단일 메뉴였는데 이젠 내 삶이 뷔페식당이 돼버려 가지고, 이 맛이 저 맛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맛있게 느껴지려면 그 모든 자식 맛, 돈 맛, 동창 맛, 명품 맛 모~든 맛을 압도하는 맛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신랑 입장에서는 신부도 마찬가지에요.
신혼여행 때 그렇게 맛있던 그 신부가, 20년 지나서 왜 그렇게 맛이 없습니까?
다른 맛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른 맛들이.
근데 이것은 인지상정이지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식 키우면서 자식 맛이 느껴지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뷔페식당적 삶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돈맛을 아는 사람이, 사업 잘되면 정말 기쁘다고 하는 사업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가지고, 하나님 나 사업 잘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업이라고 하는 피조물 중에서도 극히 일부요 미세한 피조물에 의해서 발동된 마음으로, 그 피조물 밑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맛보도록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담이 생의 처음 순간에 마음이 백지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는 얘기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6일 만에 완성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성이 됐던 미완성이 됐던 그대로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중단하라는 얘기에요, 중단하라.
완성하라는 게 아니라 중단하고 멈추라는 얘기인데, 이 중단하고 멈추라는 말 속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지워버리라는 얘기에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에요, 처음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마음을.
아담이 처음에 아~무런 삶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처럼.
그렇지 않고는, 그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맛볼 수 없고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주시고, 가지라고 주시고, 먹고 배부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으로 초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삶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어느 순간도 삶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내게 맛을 느끼게 하고 그 맛을 느낀 다음에, 많이 먹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맛을 알고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열어 놓고 계시는 안식에의 초대에 응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는 얘기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는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에요.
사도바울이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7일째가 안식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안식일 이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맛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거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하나님과 다 붙어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상태가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은 누가 살아야 됩니까?
사도바울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붙어 있느라고 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내게서 삶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삶이 시작도 되기 전인 것처럼 마음을 먹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식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고 나를 맞이해 주십니까?
에덴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내 인생, 이 육체로 살아야 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치신 뒤에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인생에서 이 땅에서 사는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노력이 들겠습니까? 재료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결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까~맣게 죽어도, 아~무 것도 잘못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겁니다.
안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안식일로 지킬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안식으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일을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인 십자가 사건에, 안식에로의 초대인 십자가 사건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십자가 위에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마음이 떠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서 다 사라진 뒤에라야, 마치 생애 첫 번째 순간을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완악함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완악함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이미 내가 맛을 느껴서 마음 안에 들여놓은 음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 음식이 좋습니다, 이 음식이 좋으니까 이 음식을 많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완고한 거라는 겁니다.
다~ 마음에서 버리고, 삶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됨으로써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당신

자신의 맛을 보고, 당신으로 배부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길이 바로 십자가로 열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프리미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염려로 내 근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이까짓 거 지운들 없었던 걸로 돌린들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다~ 준비를 끝내시고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까지의 삶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모든 세상 것들을 십자가로 다~ 몰아내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인 것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맛보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이제 우리도 십자가로 우리의 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처음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만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